

# 광주광역시 “어린이날 황금연휴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가득”

광주시청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립도서관, 한달간 독서프로그램 민속박물관, 한마당 행사 운영

광주지역에서 어린이날 황금연휴 기간 볼거리·즐거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광주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부터 6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3일에는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서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

저글링 서커스, 옴니버스 마술쇼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DJ와 함께하는 현장 노래방, 어린이 랜턴댄스, 금은보화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족을 맞이한다.

대형 에어바운스 2대가 설치되며 네일·헤어·모자아트 체험, 가족액자·



어린이날 황금연휴 광주 곳곳서 문화행사.

/광주시청

캐릭터 부채 만들기 등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아동 친화도시 광주’를 주제로 시화작품이 전시되고 안전체험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

수)에서는 5월 한달동안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등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만의 구슬풍선 꾸미기 체험(5월3일), 봄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4일)이 진행되고 사직도서관에서는 독서 포춘쿠기 뽑기(3~4일), 카네이

션 만들기 체험(7일), 그림책 원화 전시, 연체차 클린데이 열린다.

산수도서관에는 나만의 외형 키링 만들기(4일), 매직별문쇼 공연(4일), 책저금통, 책 포스터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5일 어린이·가족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페이스페인팅, 민속놀이, 무형문화유산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마술쇼, 풍선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분관인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무료로 펼쳐지는 행사를 통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덕군

#### 농어민수당, 내달 2일부터 지급

경북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2025년 농어민수당을 오는 5월 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영농 시기에 맞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로, 총 5599명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농협 지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수당을 1인당 60만원씩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울산항만공사

#### 공공기관 안전관리 ‘2등급’ 달성

울산항만공사(UPA)가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에서 2년 연속 공공기관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 신설된 안전관리 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에 성숙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적 항만안전 판단지표인 ‘하역안전지수’를 개발해 고도화 및 표준화를 추진한 점과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항만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울산=이도식 기자

### 남해군

#### 독일마을맥주축제 일정 확정

남해군의 대표 가을 축제인 제13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 일정은 지난 24일 열린 기획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천절 연휴 전 기간인 10월 초가 관광 수요와 농번기 일정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획단의 공식 출범도 이뤄졌다. 제1기 기획단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역 단체와 청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기획단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 진주시

#### 진주사랑상품권 150억 발행

진주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150억원을 발행한다.

2025년 진주사랑상품권의 총 발행규모는 600억원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발행규모를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1월에 160억원, 3월에 80억원을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홀수 달과 함께 축제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에도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부산상공회의소, 대선 건의과제 발표

### ‘부산경제계 제언집’ 발간

#### 4개 분야 24개 건의 과제 담겨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제계 대선 건의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부산시당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부산경제계 제언집’에는 4개 분야 24개 건의과제가 담겼다.

남부권 실질적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4대 인프라 확충과제,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전략과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9대 기업정책과제,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6대 육성과제다.

4대 인프라 확충과제에는 ▲부산 맑은 물 공급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등이 포함됐다.

5대 전략과제에는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및 부산 이전 ▲북극항로

구축지원 특별법 제정 ▲해사법원 설립 ▲해운거래소 설립 ▲HMM 본사 이전 등이 포함되었다.

부산상의는 해양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의 전략적 지역 배치를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재편하고, 북극항로 구축과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 및 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부산항을 세계적 복합물류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9대 기업정책 과제에는 기업 4대 규제에 대한 현장 수용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6대 육성과제 부문에서는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 ▲남부권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친환경 수소모빌리티·항만산업 육성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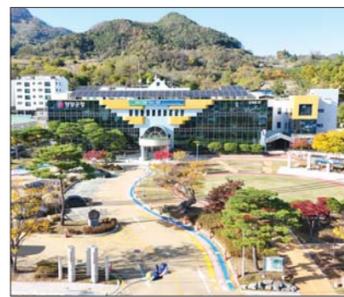
##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wegive’ 도입

플랫폼 설명회, 마케팅 교육 시행

영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초에 민간플랫폼 ‘wegive(Wegive)’를 도입했으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설명회와 답례품 업체 마케팅 및 판매 전략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플랫폼과 달리, 전문 마케팅 및 고객 응대, 답례품 업체 컨설팅까지 제공돼, 모금 확대는 물론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플랫폼 도입으로 온라인 창구를 확대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고, 기부자, 지자체, 답례품 생산 및 판매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번 교육은 wegive(Wegive)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업체들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영양군청.

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된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며,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키는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간플랫폼 wegive(Wegive)와 협업을 통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부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창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대구시, 군위군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대구시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 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군위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군위가 아닌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

면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이번 시세 추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해 인구 감소 기초지자체 중 광역시에서는 군만 해당된다.

조례는 5월 중 공포될 예정이지만 상 위법 시행일에 따라 올해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내년까지 적용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울산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위치도 제작

맞춤형 주거공간 정보 제공

울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민들이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도를 제작해 제공한다

위치도는 구·군별로 정리돼 있으며, 사업 주체, 위치 및 세대수 등을 담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총 116개소이며 5만여 세대에 달한다. 남구가 51개소 1만7000여 세대, 울주군 25개소 1만3000여 세대, 중구가 22개소 1만5000여 세대, 북구는 13개소 5000

여 세대, 동구는 5개소 1000여 세대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공사 중인 곳도 있지만 사업승인 후 착공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곳도 다수 있다.

제공되는 자료는 울산시 누리집에서 분야별 정보(건설/주택/토지) 주택허가>주택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맞춤형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도식 기자